

지혜 II.

땅의 속도를 다스리는 하늘의 지혜

1.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한다.

[이사야 11:2]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의 출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출처가 있다는 것이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지혜는 여호와와 영이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다스림, 통치’이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며, 전능한 분이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왕의 신분인 솔로몬이 구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스림은 무엇을 말하는가? 차원의 문제이다. 더 높은 하늘의 차원에서 땅으로 임하는 것이다. 차원에는 속성이 있다.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덮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출처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 땅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이다.

2. 시간과 공간

차원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간과 공간의 문제이다. ‘시간과 공간’은 차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시간과 공간을 ‘삶’이라 표현할 수 있겠다.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체감이다. 시간과 공간의 체감은 삶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행복, 기쁨, 평화의 시간과 공간이 있다. 반대로 고통, 슬픔, 아픔 등의 시간과 공간이 있다. 예수님이 없는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결말은 결국 ‘한계’이며 ‘파멸’, ‘죽음’이다. 원래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는 존재였다. 그래서 행복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존재였다. ‘만물의 영장’이라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중요하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즉 ‘영원’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한다.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보여준다.

[창세기 3:19]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낱알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래 사람은 흙으로 빚어 만들어졌다. 흙은 땅을 말한다. 그 흙에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다른 차원의 존재,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영적인 존재인 사람의 시간과 공간은, 이 땅의 차원과 공간과 다르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흙이 되었다. 이 말은 땅의 차원, 즉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결말이 흙이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흙이 된다. 어떤 업적도, 명예도, 성공도, 마지막 흙의 결말 앞에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모든 일은 시작과 마지막의 일이다. 시작과 마지막의 개념이 시간과 공간에서도 중요하다. 모든 생명에게는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 그런데 시작과 마지막은 내 의지로 다스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간은 과녁을 향해 날고있는 화살과 같다. 이 화살의 마지막이 있다. 결국 그 마지막은 ‘흙’이다.

지혜가 부어지면 처음과 마지막이 보인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마지막 과녁이 '흠'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곳으로 달려 가겠는가?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그것은 '마지막'을 알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진 것이다. 처음과 마지막을 알게되니 중간이 보인다. 그래서 판결할 수 있는 것이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3. 땅의 시간과 공간

땅을 사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의 체감은 어떠한가? 한 마디로 말하면 '속도'이다. 인생을 어느정도 살아온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하나이다. "세월이 빠르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 라는 고백이다. 인생을 돌아보니 시간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빠른 땅의 시간을 체감하며 살기 때문에, 정작 내가 살고있는 '공간'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빠른 땅의 시간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 수 있을까? 땅의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고, 빠르게 체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으로부터 분리된 육의생각 때문이다. 영원이라는 넓은 길이 아닌, 아주 가파르고, 거칠고, 좁은 육의 길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체감률이 중요하다. 같은 속도를 달리는데 길이 넓으면, 내가 느끼는 속도의 체감이 빠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길이 좁으면 같은 속도를 달려도 그 체감이 다르다. 결국 우리의 삶이 지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된 육의 생각 때문이다.

[로마서 8:6]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유가 없다. 경쟁적인 도로이다. 인류는 엄청난 기술을 동원해서 빨리 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고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하늘의 생각인 '지혜'가 없기 때문에 끝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로이다. 넓은 생각,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유이다. 이들의 삶에는 용납이 있다. 관대함이 있다. 남을 받아들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성숙하다. 나 말고 남을 쳐다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으셨다. 그 당시 자신만 알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다. 그들은 자신의 경건말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니고데모의 질문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거듭남'이다.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의 고민에 답을 얻을 것이다. 하늘의 차원에서 땅의 문제를 보기 때문에 너는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좁은 생각, 좁은 마인드가 가져오는 피곤함과 지침을 일어야 한다. 좁은 생각, 자기 것만 보는 시각에서 나와야 한다.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 좋은 예이다. 진짜 엄마를 가리는 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관대함', '넓은마음',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진정으로 자신의 아이를 살리고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재판의 기준이었다.

[열왕기상 3:27-28]

27 그 때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 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28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은 공정했다. 그리고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 말한다(28절).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으로부터 왔다는 것이다. 영원으로부터 온 지혜의 눈은 이 땅의 영원한 마음을 분별했다. 그것이 바로 27절의 '양보'라는 단어이다. 양보는 자신을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담아내는 것이다. 이 마음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판결인가?

솔로몬이 있었던 영원의 시간과 공간은 이 땅의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다 보이는 것이다. 지혜는 모든 것을 보는 여유와 눈이다.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좁은 길에서 빠르게 달리면 사물이 잘 식별되지 않지만, 넓은 길에서는 빠르게 달려도 다 보인다.

4. 지혜의 근본 하나님

[잠언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큰 분, 큰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영원에 집중하는 삶을 말한다. 이 땅의 도로를 세상 사람과 같은 속도로 달려도 피곤하지 않다. 긴장이 없다. 여유가 있다.

5. 지혜는 하늘의 호흡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다.

긴박하고 조급한 땅의 호흡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인 영의 호흡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속도를 다스리라!! 넓은 생각, 하늘의 도로 안으로 세상의 속도를 놓아라.

* 중요한 초점

땅의 속도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다. 땅의 속도 또한 중요하다. 땅의 속도를 줄이면, 사실 경쟁 자체가 안 된다. 땅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 방법이라면 산으로 가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이 땅의 시간과 공간안에 계셨고, 그 속에서 땅의 속도를 다스리는 하늘의 호흡을 보이셨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삶,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오셨다.)

‘슬로우 시대’를 강조한다. 아니다. 땅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땅의 시간을 피하면 안 된다. 땅의 시간을 살아내야 한다. 하늘의 도로 안으로 들어가 같은 땅의 속도가 주는 체감률을 다스리는 것이다. 큰 그림을 보아야 한다. 마지막 그림을 보아야 한다.

지혜는 “하늘의 타이밍”을 아는 것이다. 즉, 나의 속도를 하늘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다.

다니엘을 기억하라. 땅에서도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해 땅의 삶을 살았지만 하늘의 호흡을 빼앗기지 않았다. 이 지혜가 필요하다. 세상의 속도를 다스릴만한 더 빠른 속도가 하늘의 속도임을 명심하자!! 그 사람이 더 빨리 달린다.

하늘의 비전이 중요하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땅의 속도를 제어할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기쁨, 사랑, 충만함, 능력, 권세가 내 삶에 흐르게 하라.